

日本 바지形制 考察

金 仁 淑

慶熙大 衣裳學科

A Study on the Forms Of Japanese Trousers

In Sook Kim

Dept. of Clothing & textiles, College of Home Economics, Kyung Hee University
(1989. 12.28 접수)

Abstract

This is a review on the longitudinal transformation of the Japanese trousers, which is prepared as a pre-study for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forms of Korean and Japanese folk trousers.

The special traits of the Japanese trusers are found to be as follows:

- 1) The Japanese trousers seem to have their root in the Northern-Asian or Schithian culture.
- 2) While the ancient forms of Japanese trousers, esp., those of the 8C before include the same types as Korean folk trousers, the Medieval and Recent era trousers quite differ and transform themselves into the unique Japanese type.
- 3) All Japanese toursers can largely be classified into formal and functional trousers. Formal trousers play important role as one of the ceremonial wardrobe and are treated rather as an outermost-wear than as an inner-wear.
- 4) The formal trousers have skirt-like features with much fullness as are presented in many deep pleats, long crotch lines and long sashes connected to the belt; the femine trousers even omit crotch line.
- 5) The principal forms of Japanese trousers consist of I, \wedge , \wedge ; the λ form of Korean and Chinese type had never existed.
- 6) Varieties of the composite type of Japanese-Western style appear among the trousers of recent time.

I. 緒 論

바지는 봉재형 의복의 하나로서, 人體와 피복재료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관점의 특수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

로 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또한 바지는 그 기능적 특성으로 인하여 風土와 관습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한편 上衣에 가리운 下衣이므로 表衣의 기능이 약하여 유행에 따른 변화가 적어서 한나라의 민속복으로서의 고유한 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다.

本稿에서는 초기 복식문화를 韓半島와 共有하였던 日本의 복식 中, 자연風土와 문화적 여건에 따른 변용은 있되 短期的의 변화가 적어 民俗服으로서의 고유한 요소를 심본 지니고 있는 바지라는 특징의복을 택하여 通時的으로 고찰함으로써 韓國服飾과 日本服飾間의 比較服飾史의 연구의 기초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本稿의 연구대상은 日本문헌에 나타난 日本의 바지유물 및 그에 관한 기록과 논문들이며, 시간적 범위는 上代에서 明治維新 이전의 近世까지를 다루었다. 유물을 직접 접하지 못하고 문헌자료에 의존한 二次的 연구이므로 구체적 형태판단에 있어 오류가 개입될 가능성이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는다.

II. 古代日本の 바지

日本 古代文化의 始原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은 점이 많고 여러가지 史料가 서로 모순되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지만, 대체로 그 시기는 구석기 말기의 홍적세까지 소급된다. 즉 최후의 빙하기로 말리암이 海面이 가장 알아졌을 때 日本과 한국, 그리고 Sahalin과 Siberia 본토는 육지로 연결되었으며, 이 때 외날꺾개·송곳·조각칼등을 지닌 수렵인들이 日本으로 이주해 온 것으로 본다¹⁾. 즉 Siberia를 기점으로 한 초기의 북방계문화가 北海道를 중심으로 本州나 九州에 西進해나갔으며, 그와 동시에, 혹은 時差를 두고 北九州와 中九州지방에서는 남방계 Melanesia 문화 및 Austro-Asia 문화가 새로 일어나 서서히 東進해나갔다고 본다.

日本服裝의 원초적 형태를 논할 때는 구석기 시대의 着衣사실이 유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그 논거를 간접적 유물이라도 남아있는 繩文期(BC 9000-BC 200)로 부터 출발한다.

繩文期 복식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는 거의 유일한 유물인 繩文土偶의 복장표현은 상당히 불명료하므로 日本人복식학자들 간에는 견해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체로 ① 上衣下禪 二部式과 ② 貫頭衣 一部式의 두 유형으로 나눈다.²⁾ 이들 二元的 복장유형의 지리적 분포位相을 살펴보면 衣禪二部式은 東日本, 특히 日本海부근 및 北端 지방에서 나타나고 貫頭形一部式은 西日本에서 나타난다. 즉 琵琶湖나 浜名湖를 경계로 해서 西日本の 繩文土偶는 下體에 腰紐나 腰衣만을 걸치거나 裸體인 경우가 많으나, 東北地方 全般, 특히 關東지방과 中部 및 東部

지방에서는 바지착용의 例가 많다.

繩文土偶의 바지는 대체로 둔부에 이르는 對衿이나 衿直領과 함께 입혀졌고 바지통이 좁으며 바지부리가 발목에 꼭 맞도록 좁혀져 있으며 別布나 좁은 撰장식이 나타나 있다(圖 1). 즉, 繩文土偶에 나타난 복장은 대체로 東部亞系胡服, 즉 二部式直領袴褶과 유사하다. 이와 같은 점은 繩文土偶의 기원이 內몽고·만주·흑룡강상류의 北내륙지방에 있다는 견해³⁾, 초기 繩文文化가 Finland에서 Siberia를 걸쳐 미국 東北部에 이르는 世界北部森林地帶의 古代文明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견해⁴⁾ 및 北九州의 繩文土器 中 韓半島의 土器와 흡사한 것이 있다는 점 等の 고고학적 발견과 함께 생각하면 근 8,000년간에 달하는 繩文期를 통해 日本은 대륙과 韓半島로 부터 Siberia 및 중국대륙북부의 胡服문화, 혹은 좀더 확대하여 바지문화를 발생시킨 世界北部森林地帶의 거대한 古代文明은 수용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와 같은 문화수용의 계보가 바지착용의 의복행위에서도 나타난다고 본다.

繩文期에 이어지는 彌生文化는 BC 4C에서 AD 4C에 걸친 古代文化로서 청동과 철을 사용했던 日本최초의 농경문화다. 이 농경문화는 中國 및 韓半島 文化와의 관계가 깊다. 즉, 彌生유적에서는 中國의 청동경·漢大의 화폐등이 발굴되고, 彌生土器는 韓國·韓國의 先史시대 및 초기歷史시대의 土器와 유사하며, 농경방식 및 墓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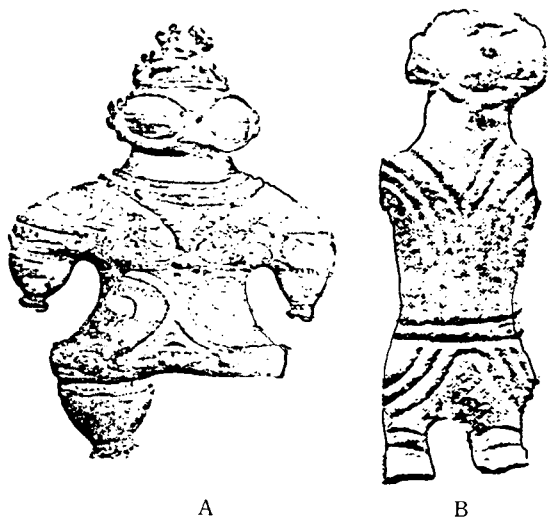


圖 1. 繩文期 着袴土偶
(A: 世界の美術; B: 服裝文化 150)

도 대륙과 반도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의 복식에 대해서는 「三國志」魏志倭人傳에서 '男子橫幅衣, 婦人貫頭衣'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橫幅衣를 걸친 倭人の 모습은 6C初에 그린 梁職工圖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 이 橫幅衣의 전통은 상당히 오랜 기간 존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복식史家들은 橫幅衣를 당시 倭國人の 일률적인 복식형태로 보지않고九州 지방에 거주하던 南方系文化를 수용한 西日本 倭人들의 복식묘사에 국한된다고 본다. 즉 猪熊⁹⁾과 武田佐知子¹⁰⁾는 '民衆은 남방계 복식을 취하였을 것이다'라고 하고, 彬本⁷⁾는 '추운날씨에는 橫幅衣만으로 견딜 수 없었을 터이므로 계급에 관계없이 衣禪을 착용하기도 했을 것'으로 보며, 鷹司²⁾는 貫頭衣·袈裟衣는 稻作농경문화의 수용과 함께, 衣禪二部式은 東北亞系문화 수용과 같이, 腰卷은 環太平洋文化의 수용과 더불어 받아들여져서 지방차를 보이며 混在했다고 본다. 또 李銀珠⁸⁾는 彌生시대가 되면서 남방경로의 문화가 새로이 전달되어 西日本에서는 남방계 一部式복장과 韓半島계 二部式복장이 현저하게 늘어나는 한편, 東日本에서는 북방경로의 二部式복장이 그대로 착용되었다고 본다. 즉 이들 복식학자들은 모두 彌生시대의 橫幅衣와 衣禪의 共存을 인정하면서도 이와 같은 복장의 二元化의 원인을 후자는 계급別分化, 다른이는 風土상의 필요, 또는 文化수용의 경로에 따른 지역別分化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彌生시대의 복식에 대한 실증적 자료는 거의 全無하다시피 하므로 이러한 주장들은 아직도 추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彌生期에는 이미 대륙으로부터 蠶桑絹織이 도입되었다하므로 彌生期の 복식문화는 繩文期の 그것과 비교할 때 소재면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으리라고 본다. 또한 水稻作을 보급한 韓半島의 二部式복장은 水稻作의 東進과 더불어 東日本으로 전파되어 東北亞系衣袴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上下계층에 서서히 수용되어 갔으리라 본다.

AD 3C末에서 4C末에 걸친 古墳시대는 墓制의 입지 조건·墳口·외부시설·내부구조등이 韓半島의 가야와 백제고분의 모습을 지니고 있고¹⁾, 또 분묘內 馬具·冠·冠帽등의 부장품이 가야나 백제·신라분묘의 출토품과 흡사하여 당시의 통치계급과 韓族과의 관련내지 일치설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이 때의 복장양식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자료는 埴輪

으로서 埴輪의 복장은 窄袖左衽短衣와 脚結大口袴나 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埴輪복장의 원류를 대해서는 몇 가지 다른 견해가 있다. 金東旭¹⁰⁾은 이들의 복식이 韓族의 복식 그대로라고 하고, 後藤¹¹⁾은 自生設을 주장하며, 高橋¹²⁾은 중국대륙계 기마민족의 胡服이 전래된 것으로 주장한다. 한편 猪熊¹²⁾은 埴輪의 衣禪은 백제를 통해 들어온 옷의 복장, 혹은 백제자체의 복장이라고 보면서, 上衣의 盤領에 대해서는 魏志에 나타난 巴 濃의 복식, 즉 '言語法俗與句麗同… 衣服有異男女皆著曲領…'이라 했던 濃의 曲領의 영향으로 본다. 한편 李銀珠⁸⁾는 古墳期 日本의 복식에 끼친 韓半島의 영향은 관료계층의 복식에 나타났을 것이며, 무덤을 지키는 下級관료를 표현한 埴輪土偶의 복식은 被지배계급의 복식으로서 土偶의 장신구가 아이누의 장신구와 비슷하므로 土偶의 복식은 아마도 아이누의 복장과 같은 계통의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한다. 그러나 필자는 현재 아이누의 복장문양이나 수놓는 기법 등이 비록 Noim-Ula·외몽고의 울란바트로 및 繩文期 土偶의 渦卷文과 유사하다 할지라도 아이누 복장의 기본형태가 衣禪二部式이 아닌 Kaftan형 一部式 外衣에 貫頭式 內衣와 脚絆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감안하면 이 견해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한편 埴輪土偶의 복장을 순진히 韓半島系胡服으로 보는 견해 또한 무리가 있다고 본다. 李銀珠가 이미 지적했듯이 盤領·無褶·衣紐·髮樣·冠帽等은 우리 上代の 服制와는 차이가 있다. 바지에 있어서도 土偶에서 보는 脚結姿는 고구려벽화의 복장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土偶의 脚結袴나 甲冑의 착용모습은 바로 중국의 秦·南北朝의 袴褶이나 戎裝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 때를 전후한 日本과 中國간의 교류관계는 AD 57년에 後漢에 사절을 파견한 것을 필두로 하여 AD 234년 魏王에 선물증여, AD 239년 帶方郡에 사절파견 등 활발하다고는 볼 수 없어도 적지않은 교류가 있었으므로 中國의 戎服이나 袴褶이 埴輪의 복장에 끼친 직접·간접적 영향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高橋¹²⁾도 北魏 및 北周의 石刻畫像의 袴褶과 埴輪의 복식이 닮았으므로 埴輪복식의 원류를 北胡人에게 소급할 수 있다 하였다. 그러나 猪熊¹³⁾은 埴輪의 출토연대가 5C 중기까지 소급되므로 北魏·北周에 앞서는 까닭에 南北朝의 袴褶과 埴輪의 복장과는 관계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필자는 埴輪의 연대가 대체로 5C末 이후 7C 까지로 추정되는 반면 北魏의 開始연대는 4C末에서 5C末에 걸쳐있고 北魏에 先行하

는 胡服文化의 원류가 그 이전에도 존재했으리라 추정되므로 埴輪에 끼친 대륙의 영향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가야·백제복식의 구체적 형태는 아직 잘 밝혀져 있지 않고 또 上代문헌에 나타난 濛의 曲領' 등의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 上代 복식이 고구려 벽화에 나타난 형태 외에 보다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다. 繩文期 이래 古墳시대의 埴輪人面에 나타나는 塗色鯨面·文身·拔齒의 관습은 南部中國 및 古몽고족과의 유사성이 지적되고 있으나¹⁴⁾ 韓半島의 上代 裝身習俗에는 나타나는 바 없으므로 埴輪복장의 원류규명에는 보다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한편 埴輪과는 별도로 古墳被葬者의 복장은 소멸하지 않고 남아있는 副藏品—冠·장신구·말안장等—이 韓半島의 그것과 흡사한 점으로 미루어 순수한 韓半島계통 복장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 구체적 형태는 飛鳥時代 上流층 二部式 복장과 근접하리라 보며 그것은 또한 韓半島의 가야·백제의 복식과 대동소이한 형태였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III. 中世日本の 바지

6C末에서 8C末에 걸친 약 200년동안 日本은 중앙집권적 법제국가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飛鳥·奈良시대로 불리우는 이 시기는 日本에 불교문화가 새로이 받아들여져 마침내는 난숙하게 꽃피우는 불교문화의 개화기이며, 또한 문화의 수용경로가 초기의 한반도 위주에서 후기에는 대륙으로 경도하는 과도기적 시기이며 이러한 문화적 성숙에 힘입어 日本의 법제도가 처음으로 정비된 시기이기도 하다. 당시의 法制국가로서의 면모를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난 例가 推古11년(603)에 제정된 冠位 12階로서 이것은 冠位 뿐 아니라 冠服色 또한 五行說에 의거하여 제정하고 있다. 推古11년에 법제화된 日本의 服制는 大化改新(647), 天武令(683), 太寶令(701)등을 통해 연속적인 개정과 변형을 겪는다.

이 때의 복식의 구체적인 형태가 어떠한지는 잘 알 수 없으나 中宮寺의 天壽國繡帳이 그 일부를 전하고 있다. 이 天壽國繡帳은 聖德太子 死後(622), 즉 7C 전반에서 중반에 속하는 유품으로 알려져 있다(圖 2).

江馬¹⁵⁾ 등의 日本복식사가들은 여기에 나타난 服制가 中國의 服制를 기본으로 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당시의 중국, 즉 南北朝 및 隨의 服制는 天壽國繡帳에 나타나는



圖 2. 天壽國繡帳의 男女服飾 (『日本の美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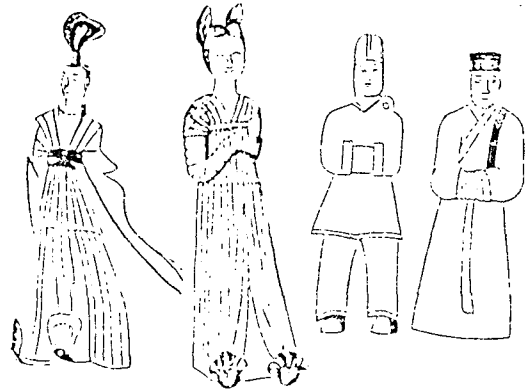


圖 3. 南北朝의 男女服飾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복장과는 圖 2·圖 3에서와 같이 큰 차이가 있어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수긍하기는 어렵다. 반면, 고구려 벽화의 복장과는 盤領을 제외하면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즉 이 때의 服制는 佛敎公傳等으로 보다 긴밀하여진 백제와의 관계로 인하여, 또 최초로 중앙집권화를 이룩하였던 당시의 정세변화로 인하여 가일층 半島 지향적으로 단일화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본다. 天壽國繡帳에 나타난 바지형태는 埴輪에서 본 바지형태와는 달리 脚結이 없는 비교적 좁은 直袴로 바지통에는 세로 주름이 세워져 있으며, 바지부리에는 蘭이 있다. 이 蘭은 天壽國繡帳에서 뿐 아니라 법릉사의 玉蟲廚子の 男子人物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와 같은 有蘭直袴는 後代 日本 表袴의 외관과 유사한 것인 한편, 고구려 벽화에서 가장 흔히 보이는 袴의 형태다. 또한 梁職工圖의 韓半島의 三國使臣들 및 唐章懷太子墓壁畫의 신라사절이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는 袴양식이기도 하다. 이와 유사한 袴양식



圖 4. 章懷太子墓의 신라사신 白袴姿
(杉本『東洋服飾史論』)

은 中國에서는 西魏의 文官用袴로 나타난다. 즉 7C 前半까지는 韓半島・日本 兩國에서 공통의 袴양식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양식은 韓半島에서는 당시에 이미 오랜 전통을 지녀왔던 것이나 中國에서는 西魏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일반적인 양식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즉 飛鳥시대의 天壽國繡帳에 나타나는 복장은 古墳시대 埴輪의 복장과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서 이와 같은 양식이야말로 古墳時代 古墳被葬者계급의 복장양식이 아니었던가 한다.

白鳳後期인 天武天皇11년(683)에는 종래의 12冠位制가 폐지되고 13년(685)에는 새로이 漆紗冠・圭冠의 制가 마련되었는데, 이 때에는 冠뿐 아니라 服制에도 변화가 있어 바지형태에도 二元의 구분이 뚜렷이 생긴다. 즉 袍에는 有蘭縫掖・無蘭欠掖의 구별이, 바지에는 直袴형태의 白袴와 바지밑단을 졸라매는 括緒褌의 구별이 있게 되어 큰 행사가 있는 날에는 有蘭縫掖袍에 白直袴를, 略裝으로는 無蘭欠掖袍에 括緒褌을 입었다. 이 때의 구체적 袴制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으나 推古朝에 본 有色袴가 白袴로 바뀌었고, 또 直袴形 外에 括袴類가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들 바지의 源流가 대륙系인지 韓半島系인지는 당시 日本의 外來文物受容의 과도기적 특징상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단지 天武天皇12년(684)에 沒한 章懷太子墓擘畫에 나타난 신라使臣이 白袴를 입고 있고(圖 4), 그 시기가 새로운 服制制定의 시기와 일치하고 있으나 漆紗冠・圭冠의 制가 鳥羽冠의 형태와 다르고 신라사신의 上衣는 袍라 칭하기에는 너무 짧



圖 5. 聖德太子御影
(『日本美術史』)

다. 또한 袍아래로 드러나는褶은 聖德太子가 推古 13년(605)에 채용했던 것이나 天武10년(682)에는 이미 그 착용을 금하였던 바 있다.

이 때는 당시 唐의 국제적 위치의 강화로 日本에서는 遣唐使를 파견하고 唐風의 건축・공예품이 나타나는 등 日本이 韓半島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唐風수용으로의 전환을 꾀하던 과도기적 시기다. 그러나 복식에 있어서는 天武朝의 袍는 아직도 古墳시대이래의 左衽으로서 養老令(718) 이후에야 右衽化하는 것으로 보아 唐의 袍制와는 꽤 거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白鳳시대의 服制는 전통적인 韓半島의 服制에서 唐의 服制로 변화해가는 과도기적 양상을 띄었을 것이나, 袍의 반침옷으로서 크게 드러나지 않았던 바지類는 근소한 변화만을 겪으면서 奈良朝에 전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天武朝의 白袴는 飛鳥시대의 直袴계통이며 括緒褌는 이미 AD 4, 5C 경의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나는 括袴類로서 古墳시대 이래 기능복으로 착용되어 오던 것이 天武朝에 와서 儀禮袴로 昇格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奈良천도 직전과 직후에 제정된 大寶令(701), 養老令(718) 등 일련의 服制개편은 飛鳥시대의 비교적 단순하던 服制를 개편・보강하여 奈良朝의 服制를 확립한 것이

다. 즉 종래의 文武官의 직위를 色으로만 구분하였던 一元의 服制체계를 보다 세분하여 궁중의례의 輕重에 따라 禮服·朝服·制服으로 三元化하고, 여태까지의 左衽을 右衽으로 고치고, 女服의 裳을 衣의 위로 오게 입게 하는 등 唐風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禮服·朝服·制服의 下衣로는 白袴를 받쳐입었다. 이때의 복장 양식은 聖德太子御影에 잘 나타나 있다(圖 5). 제작연대 미상인 이 御影은 推古朝의 聖德太子를 그리고 있으나 그 복장은 天壽國繡帳의 복장과 판이하다. 긴 圓領袍에 좁은 부리의 바지를 입고 있는 聖德太子의 모습은 적어도 大寶令 이후의 모습이며 그 복장은 盛唐의 官服과 흡사하다.

그런데 日本 正倉院에는 天武朝보다 연대가 좀 뒤떨어 지기는하나 大寶令·養老令에 의해 정제된 天平·勝寶年間, 즉 8C 中半의 服制를 實物로 전해주는 遺品衣類가 있고 그 중 바지도 수점있어 당시 實在했던 袴의 형태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正倉院의 유물바지는 그 명칭이 다양하고, 형태분류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大別하여 밑위의 開閉에 따라 開袴類와 閉袴類로 나눌 수 있고 이것은 다시 襠의 有無와 형태에 따라 三角襠과 長方形襠 및 無襠類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袴의 밑위슬기의 開閉와 襠의 형태 간에는 일정한 상관성이 있어 開袴<長方形襠, 無襠>, 閉袴<三角襠, 無襠>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襠을 加하지 않은 開袴나 閉袴도 있으나, 襠을 취할 때는 襠의 형태가 開袴에서는 長方形, 閉袴에서는 三角形으로 나타난다. 長方形襠이 달린 開袴는 모두 絹製袴인데 近代 日本 禮服下袴인 表袴가 長方形當이 있는 開袴이므로 그 原形으로 보이는 上代衣服令의 '白袴'가 바로 이러한 형태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또 이 유형 中 白橡葛縹施袴는 바지가랭이 끝에 赤地錦이 붙어있는 開袴라는 점에서 後代 束代의 表袴와 유사하다(圖 6). 이 長方形의 襠은 그 한 변이 각각 左右 가랭이의 밑위 슬기에 붙고 반대쪽은 띄어 있으며 左右 각 2개, 모두 4개의 허리끈이 붙어있다.

無襠開袴는 左右 바지가랭이의 앞중심을 약간 겹쳐 허리끈에 연결해 놓은 바지로서 前後의 밑위슬기가 열려있으며 이 유형은 모두 홑겹布製다. 正創院의 布袴中 가장 많은 유형이 바로 이 형태로서, 이것은 그 소재나 형태로 보아 下袴, 즉 內衣용 袴로 생각된다. 이 유형의 바지의 트임 및 끈 달리는 위치는 左右 어느 한쪽 옆구리로 되어 있다(圖 7). 이와 같은 無襠開袴 中에는 袷袴로서 뒷중심이 띄어 있는 것이 한점있는데 오늘날의 服引와 흡사하다(圖 8). 關根直隆¹⁾은 이 바지가 길이가 짧은 것으로 보아 下袴, 혹은 褲으로 보인다고 했다.

閉袴 中 3각襠이 붙은 것은 布製 혹은 絹製로서 單·袷 두 종류가 다 있다. 이들은 正創院 유물바지중 가장 흔한 형식이다. 보통은 內袴로 보나 이 형식中 「鼓擊袴」 「吳公袴」라는 墨書名이 붙은 바지는 翡翠色 혹은 綠色 絹製안감이 들어 있어 表袴로 보인다(圖 9). 이 鼓擊袴·吳公袴는 그 바지부리가 30에서 60cm에 이르는 대단히 넓은 것인데 關根¹⁾은 「和名抄」에 이른바 「大口袴唐令云慶善樂舞四人白系布大口袴」의 '大口袴'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보고 이 袴가 中國史書에 나오는 韓半島의 大口袴가 아닐까 추정한다. 한편 無襠閉袴형식은 襠이 없이 左右가랭이의 밑위슬기가 완전히 봉해진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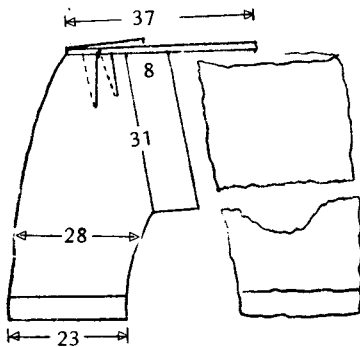


圖 6. 正倉院의 白橡葛縹施袴
(關根直隆: 「奈良朝服飾の研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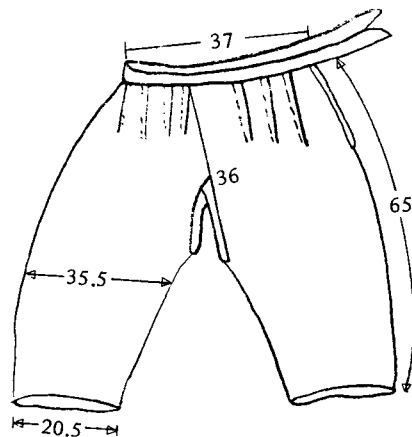


圖 7. 正倉院의 無襠開袴
(關根直隆 「奈良朝服飾の研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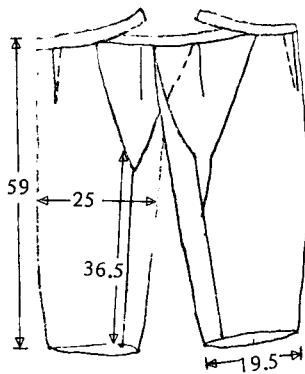


圖 8. 正倉院의 白施裕下袴
(關根直隆: 「奈良朝 服飾の研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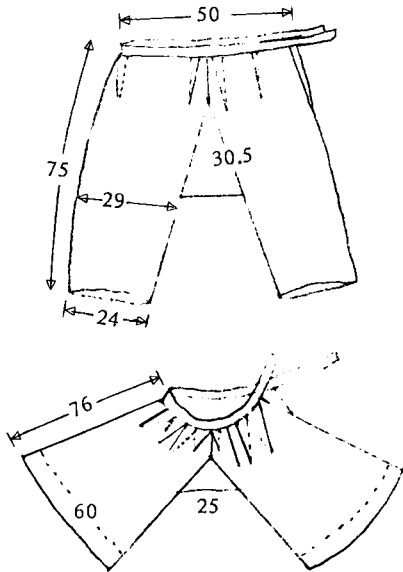


圖 9. 正倉院의 三角襠 關袴
(關根直隆: 「奈良朝服飾の研究」)
A: 布袴 B: 鼓擊袴

허리끈이 달려있다. 이 외의 閉袴로는 內股에 연해 한 가량이 단에서 다른 가량이 단까지 길고 좁은 襠이 붙은 것도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바 正倉院 소장의 初期 日本袴에는 韓國의 民俗袴에 나타나는 開袴·閉袴·三角襠袴·長方形襠袴·無襠袴의 形制가 다 나타나 있다. 이 中 三角襠袴·無襠閉袴類는 韓國男子民俗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유형이나 開袴類는 韓國에서는 女子內袴로서만 존

재한다. 開袴中에서 특히 시선을 끄는 것은 長方形當이 붙은 開袴로서 그 중 바지부리에 赤地錦이 붙은 것은 後代表袴의 原形으로 보고 있다. 表袴는 平安朝에서 江戸 시대에 걸쳐 文官朝服은 물론 王의 御袴가 되었던 최고의 當袴이다. 그런데 바지부리에 赤蘭이 붙은 直袴의 형태는 바로 梁職貢圖 및 天壽國繡帳에 나타난 直袴와 같다. 또한 章懷太子墓의 신라사신이 입은 袴의 모습은 바로 表袴의 형태 그대로이다. 그러나 天壽國繡帳이나 章懷太子墓의 袴가 開古였을 가능성은 낮다. 앞에서 살펴 본대로 古墳期에서 推古朝에 이르는 동안의 日本服制가 韓半島系였다는 점을 참작하면 이와 같은 開袴출현의 시기는 日本服制가 唐의 영향권內에 수용되기 시작한 天武朝 이후부터라고 생각된다. 즉 韓半島系 短上衣과 함께 閉直袴를 입고 있던 일본인은 天武朝이래 長袍가 韓半島系 短上衣를 대신하게 되면서 袍 아래 가리워진 袴를 한 국여자의 裳아래 下袴처럼 閉袴에서 開袴로 변형하게 되었으리라 추정해볼 수 있다. 韓國까지는 일찌기 短上衣 아래로 밀위술기가 노출되는 형이었으므로 開袴가 原形이었으리라 보기는 힘든 반면 中國系 長袍 속에서는 閉下袴 위에 開袴를 입는 것이 가능했으리라 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거는 문헌상에 나타난 古代 日本袴의 호칭의 변화도 뒷받침해주고 있다. 즉 古代 日本의 바지에 대한 古문헌상의 명칭은 推古朝 이전에는 「袴」와 「褌」을 다 사용했으며 그중에서도 「褌」이란 용어를 더 자주 사용했으나 推古朝 이후로는 「袴」라는 용어를 더 자주 사용하게 되며 「袴」로는 當代의 바지를, 「褌」으로는 古末의 바지를 지칭했다고 한다¹⁷⁾. 즉 韓半島系 閉袴를 입던 飛鳥時代이전에는 百濟의 바지칭 용어였던 「褌」을 주로 사용했으나 推古朝·天武朝이래 唐의 영향을 받아 開袴를 表袴로 수용하면서 그 명칭도 「褌」에서 「袴」로 점차 변화하게 된 것 같다.

794년 平安에 천도한 이후 1185년까지 계속되었던 平安朝는 日本服飾史上 「國風時代」라고 분류될 정도로 韓半島와 中國대륙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日本의 독자적인 문화양식 및 복식창안에 힘썼던 시기이다. 그러나 平安朝前期까지는 奈良朝이상으로 唐文化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文化의 諸 方面에서의 국제화를 꾀하였다. 즉 건축물의 이름·官職名은 물론 男女衣服도 唐風으로 고쳐 仁明天皇때(842)에는 「續日本後紀」에 ‘天下儀式 男女衣服, 皆傳唐法’이라는 기록이 나타날 정도로 이른다. 그러나 仁明朝이후로는 서서히 日本人 특유의 기질,

즉 外來文化의 國俗化현상, 즉 반도와 대륙의 문화를 종합, 변질, 和樣化 시켜나가는 문화의 변증법적 변화를 일으킨다. 즉 대륙전래의 唐樂·林邑樂·伎樂等に 倭의 神樂·大和舞·東遊等이 합해진 舞樂의 생성, かな의 발생, 종래의 立式위주에서 座式으로 바뀐 寢殿造의 축조, 遣唐使의 폐지등이 모두 이 시기에 이루어진다. 天皇을 중심으로한 귀족문화가 만발하여 생활은 유희와 사치중심으로 흐르고 복식에도 보다 풍요한 색채와 容量美¹⁸⁾를 회구하는 적극적 미의식이 반영되며 화려함을 강조하는 儀禮服이 발달하게 된다¹⁹⁾. 따라서 옷이 길고, 넓고, 화려해지며 여러벌을 겹쳐입는 重着의 관습이 생겨난다.

平安후기의 복식에는 형태의 변화 뿐 아니라 服制 자체도 韓半島와 中國대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平安고유의 독자적 제도가 나타난다. 즉 大禮服이었던 禮服은 唐風을 유지하기는 하였으나 平安中後期에 이르면 天皇의 즉위식 外에는 입는 일이 거의 없어져 그 형식을 보존하기조차 어려울 지경이 되었고²⁰⁾, 朝服에는 和樣의 束帶가 사용되어 大小行事에 두루 쓰이는 小禮服이 되었다.

朝服은 종래의 袍에 비해 그 길이가 길어져서 땅에 끌릴 정도가 되고 소매나 길의 폭이 넓어졌을 뿐 아니라 半臂·下襲·裊·單·表袴·大口袴·禪등을 겹쳐입는 重着이 되고 그 종류는 직급과 의례의 輕重에 따라 束帶·布袴·衣冠 등으로 세분되었다.

平安朝 袴의 구체적 형태를 잘 알 수는 없으나 束帶가 奈良朝의 朝服에서 변질된 것임을 생각하면 表袴는 奈良朝의 白袴와 유사하리라고 본다. 이것은 表袴가 冬夏를 통해서 白色一色이었다는 점²¹⁾에서도 일치한다.

後代의 表袴는 左右 各 1폭씩 모두 4폭으로 되어있고 앞뒤의 밑위술기가 열려있는 開袴로서 '返り襠'이라 불리는 長方形의 襠이 붙어 있다(圖 10). 奈良朝의 表袴와 비교할 때 襠이 두배나 길어진 점, 赤地錦부분이 넓어진 점이 다르다.

下袴는 大口袴로서 이것 역시 當代의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으나 後代의 束帶一襲에 포함된 大口袴와 같은 것으로 보여진다. 後代의 大口袴는 左右 그폭 모두 4폭 바지로서 三角襠이 달린 懸袷 閉袴이다(圖 11). 보통 紅色을 사용하나 때로 紫色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大口袴는 三角襠 閉袴라는 점에서 正倉院의 久太袴·布袴·吳公袴·鼓擊袴와 유사하나 바지부리의 넓이는 久太袴·布袴와 吳公袴·鼓擊袴의 중간정도이다. 朝服의 布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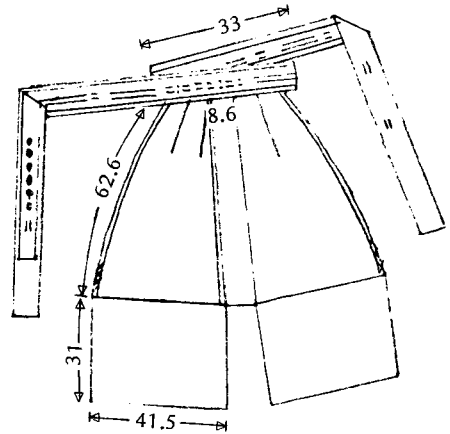


圖 10. 表袴
(栗原：「時代衣裳の縫い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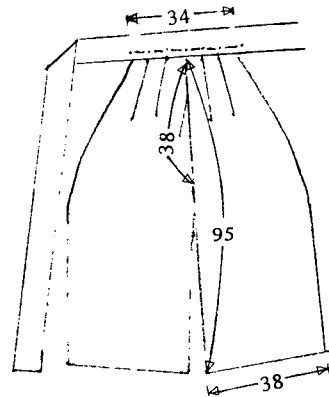


圖 11. 大口袴
(栗原：「時代衣裳の縫い方」)

衣冠과 直衣·狩衣의 袴였던 指貫의 當代의 형태는 역시 알려져 있지 않으나 後代의 同名의 袴로 미루어 보아 天武朝의 括袴가 그 원형으로 보인다. 指貫은 一名 奴袴·布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表袴 大口袴가 4폭임에 반해 6폭 혹은 8폭으로 된 여유분이 많은 너른 바지다. 앞뒷판에 깊은 주름이 있는 三角襠 閉袴인데 바지부리를 오무릴 수 있도록 부리에 긴 끈이 통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圖 12). 指貫의 이 특징은 大寶元年의 '縛口袴', 天武紀의 '括緒禪'과 관련이 있어보인다. 그런데 正倉院의 遺物袴 中에는 바지부리에 끈이 있는 白繩袴가 있어 이 바지부리 형태의 祖形이라할 만하나 長方形 襠 開袴에서 三角襠 指貫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指貫은 바지부리가 넓고 三角襠이 붙은 大口袴類와 括袴類를 合成,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낸 和樣創出의 一例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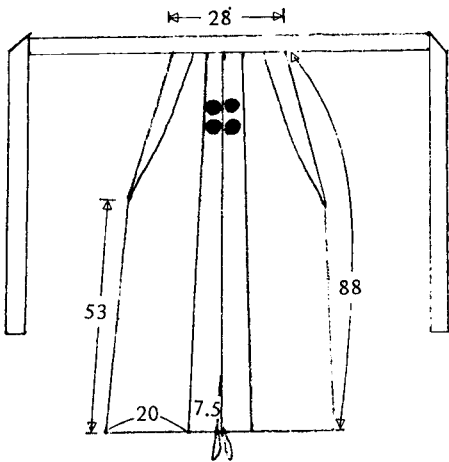


圖 12. 指貫
(栗原：「時代衣裳の縫い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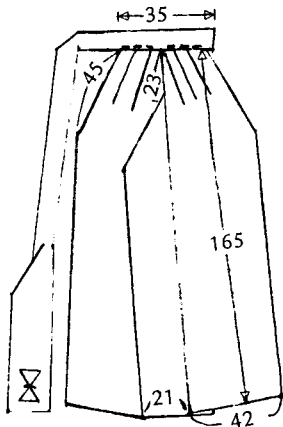


圖 13. 12單 女袴
(栗原：「時代衣裳の縫い方」)

보여진다.

한편 女服에도 袴를 받쳐입었는데 女服下衣로 袴를 받쳐입는 것은 오래전부터의 습속으로서 瀆鼻褌에서 유래하여 귀부인은 물론 中流계급 부인들도 입었다 한다²¹⁾. 平安朝 이전까지는 短袴를 맨살에 직접입어 裳 밖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平安朝이래 清裝束 12單·藝裝束 唐衣 等 外衣의 長大化와 더불어 바지는 길어져서 그 길이가 땅에 끌릴 정도가 되어 바깥에 노출되어 禮服의 一部를 이룰 정도가 되었다. 公家부인들은 여름 실내복으로 單과 圭에 袴만을 입기도 하여 이를 'はたが姿'라 따로 부르기도 하였다. 女袴를 一名 '張袴' '打

袴', 혹은 '紅袴', '非袴'라고도 했는데 이것은 女袴의 소재를 풀을 먹여 땃땃한 生絹 혹은 두드러서 광택을 낸 生絹등을 사용했고 그 색이 보통 紅·非등 붉은 계통이었기 때문이다. 當代의 女袴의 형태 역시 알 수 없으나 後代 12單의 女袴에는 襠이라 할만한 것이 따로 없이 左右各 6폭, 합계 12폭으로 이루어진 넓은 치마바지形으로 後代 馬乘袴와 비슷하다(圖 13).

IV. 近世日本の 바지

平安中期 이후부터 중앙정치권이 약화되고 지방 호족의 세력이 강화되어 12C末경에 鎌倉幕府가 서면서 제반 사회현상의 주도적 역할을 武家가 담당하게 된다. 鎌倉幕府에서는 儀禮·享宴등을 중시하는 平安朝의 화려하고 과시적인 분위기는 일신되어 武家の 기능성·실용성 위주의 검소검박한 분위기로 바뀌어진다.

鎌倉朝의 服制 또한 간소화되어 平安朝 最高朝服이었던 束帶는 朝廷과 관련된 儀式에서만 사용되고 通常禮服으로는 公家에서는 平安朝公家男子의 사교복 내지 平常服이었던 直衣를, 武家에서는 狩衣를 사용하게 된다. 袴는 前代와 마찬가지로 束帶에는 表袴·大口袴를, 直衣·狩衣에는 指貫을 갖추었으며, 天皇의 引直衣에는 紅袴를 갖추었다. 直衣는 길이가 길어 袴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았으나, 狩衣는 그 길이가 짧고 옆트임이 있어 指貫이 내다 보였다. 이 때의 指貫은 바지부리를 오무리고 여유분이 많은 모습으로 前代와 비슷하나 直垂衣 및 大紋袴로 입힐 때는 上下同素材를 사용하는 점이 새롭다.

鎌倉시대에 와서의 바지에 관한 두드러진 변화는 着裝法의 변화다. 즉 水干과 直垂衣 및 大紋의 着裝時, 束帶·狩衣에서와는 달리 上衣를 袴 속으로 넣어 입는 것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바지허리말기 부분이 밖에서 보이도록, 즉 바지전체를 밖에서 볼 수 있도록 입는 방법은 民衆 및 女袴에서는 이미 존재하던 着裝法이었으나 상류층복장에서는 최초로 나타난 것으로서 韓半島나 中國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着袴姿라 하겠다. 이것은 마치 奈良朝에 唐의 영향으로 女子들이 裳을 衣위로 입던 변화에 비견할 만한 변화라 하겠다. 이와 같은 着裝法의 변화는 鎌倉時代 武士 복식의 대부분이 종래의 狩衣등의 團領袍를 생략한데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주로 垂領上衣 위로 裳을 올려 입는 형식이었으나 水干



圖 14. 直垂衣姿
(井筒維風：「原色日本服飾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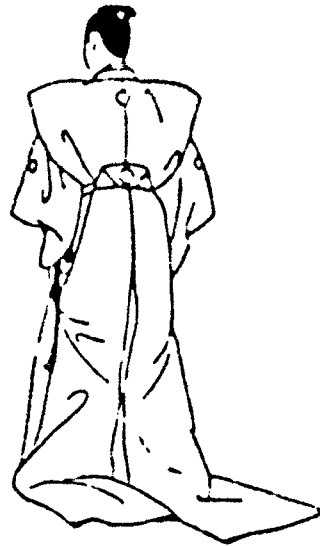


圖 15. 肩衣長袴姿
(井筒維風：「原色日本服飾史」)

의 경우는 團領上衣 위로도 裳을 올려 입어 着裝양식 자체의 변화가 확립된 것으로 보인다(圖 14). 이와 같은 着裝法의 목적은 上衣를 절처히 긴박하여 지나친 길이나 여유분을 통제하여 활동의 민첩성을 도모하는데 있었던 것으로 그 原形을 平安朝 民衆의 直垂衣 및 垂干括袴에서 찾을 수 있어 복장의 기능성을 중시한 鎌倉시대에 나타난 일종의 服飾變化의 下剋上현상이라 하겠다. 한편 近世 日本袴가 다른 나라의 袴와는 달리 마치 치마와 같이 밑위가 길고 주름이 풍성한 형태를 갖추게 된 데는 이와 같이 袴가 最外衣가 되는 禮服으로서의 기능을 부여 받은 鎌倉시대의 着裝양식의 변화가 一助하였으리라 추측된다. 平安朝후반에 독자적 창의성과 의례화가 극에 달했던 日本의 복장, 특히 武家の 복장은 鎌倉이래 武家の 특세와 함께 가속적으로 기능화·실용화되고 이렇게 실용화된 武人の 복장의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武家の 禮服으로 格上하게 된다. 즉 前代에 武士의 平服이었던 直垂가 公家の 束帶에 해당하는 武家の 최고 禮服이 되고 小袖가 常服의 中心이 된다. 室町中期, 특히 應仁의 亂(1467) 이후에는 소매없는 略式上衣, 즉 肩衣가 나타났는데 이 肩衣 또한 後期로 가면 武家の 禮服이 된다. 초기 肩衣의 下袴로는 길이가 짧은 指貫형태의 小袴를 입었으나 室町중기 이후 肩衣가 禮裝化되면서 上下同色の 길이가 긴 指貫형의 長袴로 변한다. 長袴는 그 길이가 무려 165cm내외에 달하는 것으로 着裝시 長袴의 바지부리는 着裝者의 발뒷꿈치 뒤로 길게 남아 일종의 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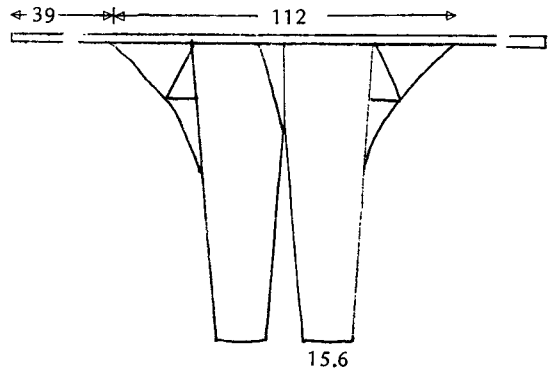


圖 16. 股引
(高橋春子：「衣の民俗義書，勞動着工」)

train을 이룬다(圖 15). 이 과장스러운 長袴의 길이는 기능을 위주로 하는 武士계급 지배下的 日本에서도 그 脈을 이어가는 儀禮化·장식성 취미의 전통을 보여주는 좋은 例의 하나라 하겠다.

室町期에 출현하는 것으로 알려진 服引은 開袴形의 여행·작업用 바지로서 밑위술기가 열려있는 점은 表袴 등의 開袴와 유사하나 뒷中心이 완전히 열려 뒤로 여미게 되어있고 바지통이 좁으며 끈이나 別布로 바지부리를 여미게 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 또한 襠도 方形襠이 아닌 三角襠이 數枚 조합된 것으로 밑위술기가 곡선을 이루는 점이 다르다(圖 16). 股引과 형태가 유사한 것으로 바쯔

치가 있다. ハツチ는 股引과 흡사한 開袴로서 關東地方에서는 위에서 든 股引형태의 開袴가 목면物인 때는 '股引'으로, 縮緬이나 絹等の 고급소재일 때는 'ハツチ'로 부르나 關西地方에서는 소재에 관계없이 길이에 따라 그 명칭을 달리하여 길이가 짧을 때는 '股引'로, 길 때는 'ハツチ'로 부른다. 즉 股引과 ハツチ는 노동복 開袴類로 그 구분의 기준은 지방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高級化·儀禮化된 것을 ハツチ로, 보다 低級의 기능화된 것은 股引로 부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股引에 비해서는 ハツチ의 바지통이 넉넉하다는 차이도 있다. 한편 江戸 중기이전에는 男子의 股引型 바지를 그 소재·길이의 구별없이 ハツチ라고만 했다고 하는데²²⁾ 이 'ハツチ'라는 용어가 우리말 '바지'와 유사한 점을 감안하면 이 股引나 ハツチ의 연원은 보다 오랜 것으로 추정되며 그 祖形은 正倉院의 白繩裕下袴(圖 8)로 소급될 수 있다고 본다. 鷹司는²³⁾ 股引 및 ハツチ류가 현재의 西日本에 보다 많이 잔존해 있음을 들어 이와 같은 바지형태가 稻作농경과 함께 西日本에 전파되어 北上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지적은 'ハツチ'라는 명칭과 彌生期 稻作농경문화의 기원이 韓半島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생각해볼 때 의미 깊은 것으로 보인다.

桃山時代に 일어난 바지의 변화는 1543년 Portugal 사람이 탄 中國junk船이 種子島에 표류한 이래 들어온 西洋服, 즉 Spain-portugal人的 복장인 이른바 南蠻服의 영향이다. 이들이 입고온 Renaissance 및 Islam風의 복식은 日本에 많은 南蠻服 추종자를 만들었는데 특히 이들의 바지는 직선재단이었던 日本바지의 재단과 봉제법에 큰 변화를 가져와 밑위술기의 곡선화·褶구성의 복잡화·앞트임등을 도입시켰으며, 바지부리를 극도로 좁히고 바지上部를 부풀린 輕衫을 유행시킨다(圖 17). 필자의 추측으로는 이때 도입된 곡선재단은 기존의 직선재단의 開袴나 股引類의 밑위 및 褶의 재단法에도 영향을 끼친 바 없지 않으리라 본다.

江戸시대에 들어서면 室町中期에 禮裝化되었던 長袴는 肩衣와 한벌을 이루고 고급 武將의 宮中通常禮服이 되어 長袴라고 불리게 되며, 이때 長袴 대신 切袴를 받쳐입은 略服은 半袴라고 불리웠다. 이 長袴의 腰板에는 肩衣의 背·襟과와 같은 家門을 장식했다. 長袴에서 보는 사다리꼴 腰板의 형성은 室町中期, 즉 15C말엽으로 본다²⁵⁾. 일반적으로 長袴·半袴의 袴는 上衣와 같은 소재로 만들었는데 줄무늬있는 바지를 입을 때는 특별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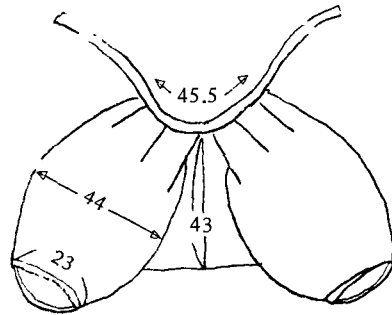


圖 17. 輕衫
(丹野郁: 『南蠻服飾の研究』²⁴⁾)



圖 18. 大腰袴
(井筒維風: 『原色日本服飾史』)

織袴라 불렀다. 이 長袴는 肩衣外에도 直垂·大紋·素襖等과 더불어 大名과 武士의 禮服을 이루었다. 한편 表袴와 指貫은 束帶·狩衣의 袴로 계속 사용되었다.

武士가 平服일 때는 바지를 입는 것이 通例였으나 집에 있을 때나 老人의 경우에는 바지를 입지 않는 일도 흔해지고, 반대로 庶民들도 격식을 차릴 때는 바지를 입게 되어 江戸시대에 들어와서 日本의 바지는 기능복보다는 儀禮服으로서의 기능이 보다 강화된다.

1862년에는 羽織과 袴高袴가 武士의 平服으로, 1867년에는 公服으로 인정되어 이것을 羽織袴라 불렀다. 羽織袴는 또 袴高袴라고도 불리웠다. 羽織袴에는 袴高袴 外에도 平袴가 있었는데 平袴는 袴이 달린 위치가 낮고 밑위가 길어 마치 치마처럼 보이는 반면 袴高袴는 袴이 달린 위치가 높아 보다 바지다운 면모

를 갖추었다. 江戸시대의 바지로는 이외에도 용도별로 다양한 변형이 나타나 野袴・裾細袴・踏込袴等이 있었고 江戸前期에는 輕衫・裁付도 유행했으며 ハツ치는 특히 明和・安永間에 유행했다. 野袴는 武士가 駕籠을 타고 여행할 때나 江戸城内에 입성하는 商人들이 입던 바지로 바지단에 비로도의 裾橡이 붙은 바지이고, 裾細袴와 踏込袴는 모두 하급 武士의 여행용 바지로 바지부리가 좁은 것이 공통점인데 裾細袴는 밑단을 후려 재단하여 좁힌 것인 반면에 踏込袴는 바지밑단에 끈을 달아 무릎아래까지 바지를 끌어올려 묶는 점이 다르다. 裁付는 輕衫과 같은 종류이나 輕衫이 바지부리의 布나 帶로 바지부리를 좁혀 주는데 半해 裁付는 脛巾이 따로 붙는 점이 다르다²⁴⁾.

한편 平安朝이래 紅袴・緋袴등 길이가 길고 폭이 넓으며 三角裾이 달린 너른 바지를 입고있던 여자들은 鎌倉이래 湯卷・裳袴를 입었다. 이들 바지의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明治이후 男女學生들이 두루 입었던 行灯袴의 형태, 즉 명칭만 袴일뿐 밀위술기가 없어 실제로는 筒狀의 치마에 지나지 않았던 擬似바지형이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는 필시 裾의 불편함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으리라 본다. 그러나 室町시대 이후 小袖姿가 확립되자 점차 바지가 생략되어 江戸시대에는 女子는 바지를 입지 않는 것이 慣習이 되었고 明治 이후 서양복이 들어오기 까지 女子가 입었던 유일한 바지는 앞서말한 밀위 없는 치마風의 行灯袴 뿐이었다. 단지 궁중에서는 將軍의 正妻나 大名의 奥方등이 儀式 및 火事裝束의 하의로서 袴를 입었다. 江戸後期에는 御展 궁녀들이 白小袖에 大腰袴라는 廣幅의 腰紐가 달린 紅長袴를 입었다. 이 大腰袴의 紐는 처음에는 허리에 묶었으나 나중에는 팔이나 어깨에 걸치는 형식으로 입었다(圖 18).

이 외에도 그 始原이 확실치 않은 民俗袴로 もんぺ, 山袴등이 있어 日本袴의 종류는 실로 다채롭다.

이와 같이 日本 男女袴의 다양한 형태는 1868년의 明治維新이래 日本전통복식이 洋服으로 대체될 때까지 日本민속복의 중요한 위치를 지키며 변천하여 왔다.

V. 結 論

이상에서 日本袴의 通時的 變化를 개괄적으로 살펴보

았다. 이 統時的 考察에서 나타난바 日本袴의 특징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日本袴의 始原은 繩文期까지의 소급이 가능해 보이며 日本袴를 생성시키고 있는 古代文化의 계통은 內몽고・만주 및 흑룡강 상류로 이어지는 Siberia 및 中國 대륙과 韓半島의 胡服文化 내지는 世界北部森林地代이 北方系文化와 같은 계통으로 보인다.

둘째, 上代の 日本袴, 즉 적어도 8C中半의 正倉院의 袴等에는 韓半島의 近世男女民俗袴의 諸類形이 거의 나타나있으나 平安朝 이후의 中世・近世 日本袴에는 韓半島 및 中國系 袴와는 판이한 고유형태가 생성・발전한다.

셋째, 近代 日本袴는 크게 儀禮用袴와 實用袴로 二元化되어 있다. 그 중 儀禮用袴는 日本男子의 公式服으로서의 비중이 크며, 또한 着裝時 上衣 위로 袴를 올려입는 점, 襖・肩衣・羽織등을 여미지 않고 벌려 입어 腰板 및 袴의 상당부분이 바깥으로 드러나보이는 점等 表衣의 의의가 크다. 袴에 주어진 儀禮服 表衣로서의 비중은 日本袴를 他國의 袴에 비해 大形化・重量化・裝飾化하였다.

넷째, 日本袴에 부여된 儀禮기능과 더불어 日本의 島嶼的 풍토는 餘他복식류의 開放形 형태에로의 발전과 함께 순수 기능적 목적에서 생성된 의류인 袴조차도 開放形—즉, 주름이 많고 밀위가 길고 부리가 넓으며 옆트임이 깊고 腰板의 前後가 나누어져 있는 裳에의 근접형으로 발전시킨다. 나아가 女袴의 行打袴와 같이 명칭은 袴이나 그 형태는 완전한 裳인 사뭇 역설적인 복식유형을 창출하기까지 하며 또한 이와 같은 형태는 男袴에도 응용되기에 이른다. 또한 女袴에 있어서의 儀禮用袴는 大腰袴라는 과장스러운 大型袴로 발전하는 한편 平常服袴는 鎌倉시대에 이미 생략되는 등 대조적인 변화를 보여 주고 있어 이와 같은 점도 儀禮袴의 강조와 풍토적 袴不要性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日本袴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 유형은 1・8・8子 밀위술기²⁶⁾를 가진 바지들로서 日本의 民俗袴에는 中國이나 韓半島 民俗袴의 대표적 유형인 斜幅袴가 나타나지 않는다.

以上 日本袴의 通時的 變遷양상의 고찰에서 드러난바 특징은 袴의 기원이나 古代의 原形을 共有하는 中國 및 韓半島의 袴와 相互 비교 고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 또한 袴의 형태변화에 나타난 이와 같은 특징은

三國의 제반 문화현상의 특징과도 적지 않는 관련을 지닐 것이라고 보아, 옷을 文化내용 表出의 특정양식으로 보는 보다 광의적 범주의 연구를 가능케 해주리라 본다.

參 考 文 獻

- 1) Whitehouse, David (1975), *Archaeological Atlas of the World*, London: Thames Hudson.
- 2) A) 鷹司綸子(1976), “繩文期の 服形”, *服裝文化* 150 : p 42.
B) 江坂輝彌(1975), “繩文人の 裝身具と 衣服”, *服裝文化* 147:pp 3-20.
- 3) 江坂輝彌, 「繩文時代の 考古學」, 鷹司, 前掲書, p. 49 에서 再引用.
- 4) 에드윈 O. 라이샤워, 존 K. 웨어뱅크(1960), 「東洋文化史」, 全海宗·高柄翊(譯), 서울:乙酉文化社, p 584.
- 5) 猪熊秉繁(昭和 37), 「古代の服飾」, 東京:至文堂, p. 41.
- 6) 武田佐知子(1983), “袴と貫頭衣”, *Panoramic Magazine*, 20, (ほう文化 研究所), pp 42-45.
- 7) 杉本正年(昭和 54), 「東洋服裝史論文」, 古代編 東京:文化出版局, p 45.
- 8) 李銀珠(1985), “日本古代服飾에 관한 研究”, *대한가정학회지* 23(2), pp 1-11.
- 9) 金基雄(1981), “墓制”, 「日本文化的 源流로서의 比較 韓國文化」, 東北豆細亞研究會(編), 서울:三省出版社, pp 364 483
- 10) 金東旭(1973), 「增補韓國服飾史 研究」, 서울:亞細亞文化社, p 75
- 11) 從藏守--(昭和 17), 「日本 古代文化研究」, 東京:河出書店, pp 308-310.
- 12) 高橋(1927), 「日本服飾史論」, 東京:大鐘閣.
- 13) 猪熊秉繁(昭和 37), 「古代의 服飾」, 東京:至文堂, pp 70-89.
- 14) A) 春成秀爾, “身體의 變工”, *考古學*(5), p 64.
B) 三上次男, 「古代東北아시아史研究」, 東京:吉川弘文館, p 148.
- 15) 江馬 務(昭和 45), 「日本服裝小史」, 京都:星野書店 p. 11.
- 16) 關根真降(昭和 49), 「奈良朝服飾의 研究」, 東京:吉川弘文館, pp 125 126.
- 17) 三木三郎(1966), “袴と輝”, 「風俗」, 6(3), pp 35 38.
- 18) 日野西資孝(編)(昭和 43), 「日本の美術」服飾, 東京:至文學, p 28.
- 19) 北村哲郎(昭和 48), 「日本服飾史」, 東京:衣生活研究會, p 51.
- 20) 井筒雅風(昭和 57), 「原色日本服飾史」京都:學琳社, p 289.
- 21) 太同(平成元年), 「日本服制史」, 東京:文化出版局, p 174.
- 22) “ハシチ”, 「服飾辭典」, 1973, p 652.
- 23) 鷹司綸子(1976), “日本古代服飾にみる 北方要素”, *服飾文化* 150, pp 42-49.
- 24) 丹野郁(昭和 51), 「南蠻服飾의 研究」, 東京:雄山閣.
- 25) 遠藏武(1951), “袴의 腰板의 史的 研究”, *被服文化*, 10, pp 2-4.
- 26) 金仁淑(1989), “中國바지形制 고찰”, *韓國衣類學會誌*, 13(3), pp 268-285.